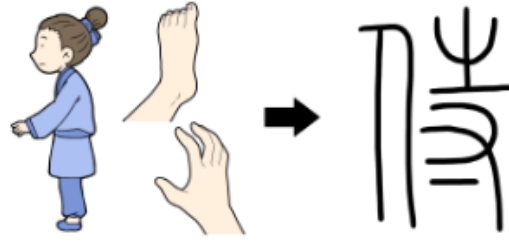


3(2)
-
261

회의문자①



侍

모실 시:

侍자는 '모시다'나 '받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侍자는 人(사람 인)자와 寺(절 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寺자는 사람의 발을 손으로 떠받치고 있는 寺^寺 모습을 그린 것이다. 고대에는 寺자가 높은 분을 모시며 나랏일을 했던 관청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이렇게 높은 분을 모시는 관청을 뜻했던 寺자에 人자를 결합한 侍자는 '높은 분을 모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고대에는 왕 곁에서 시중을 들던 사람을 뜻했다.

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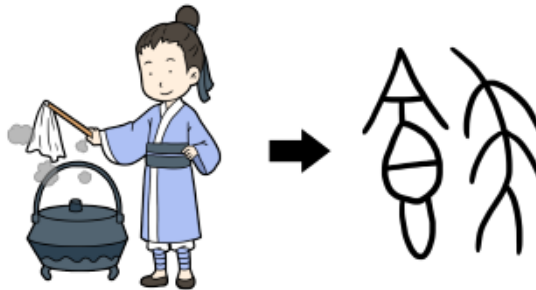
소전

侍

해서

3(2)
-
262

회의문자①



飾

꾸밀 식

飾자는 '꾸미다'나 '단장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飾자는 食(밥 식)자와 人(사람 인)자, 巾(수건 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巾자는 '수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니 飾자는 사람(人)이 행주(巾)로 식기(食)를 닦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갑골문에 나온 飾자를 보면 큰 식기 앞에 빗자루가 飾^飾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제사를 지내기 전에 식기 주변을 깨끗이 정돈한다는 뜻이다. 이후 소전에서는 사람이 飾^飾 더해지게 되면서 지금의 飾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飾자는 제사 전에 정돈한다는 뜻이 확대되어 지금은 '꾸미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飾

갑골문

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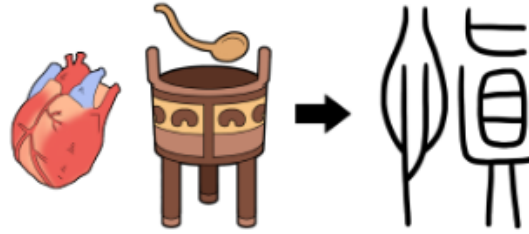
소전

飾

해서

3(2)
-
263

회의문자①



慎

삼갈 신:

慎자는 '삼가다'나 '근신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慎자는 心(마음 심)자와 眞(참 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眞자는 신에게 바칠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는 의미에서 '참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참됨을 뜻하는 眞자에 心자가 결합한 慎자는 조심스럽게 신에게 제물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삼가다'나 '근신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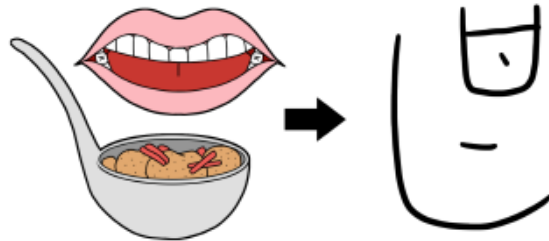
소전

慎

해서

3(2)
-
264

회의문자①



甚

심할 심:

甚자는 '심하다'나 '초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甚자는 甘(달 감)자와 匕(비수 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甘자는 입안에 음식이 들어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甚자의 금문을 보면 큰 수저 위에 점이 하나 찍혀있었다. 이것은 수저에 '음식을 가득 담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큰 수저 뒤로 甘자가 그려진 甚자는 입에 음식을 가득 집어넣으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甚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심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甚

금문

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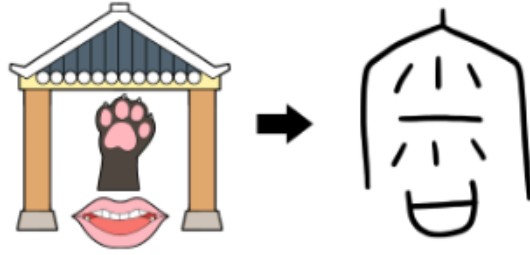
소전

甚

해서

3(2)
-
265

회의문자①



審

살필
심(·)

審자는 '살피다'나 '주의하여 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審자는 宀(집 면)자와 審(차려 번)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審자는 采(분별할 변)자와 田(밭 전)자를 함께 그린 것으로 논밭에 동물의 발자국이 찍혀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금문에서는 집안에 采자와 口(입 구)

자가 審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집안에 찍힌 동물의 발자국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審자는 이렇게 어떤 동물인지를 놓고 서로 옥신각신 따지는 모습에서 '고찰하다'나 '자세히 알아보기'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다만 소전에서는 口자가 田자로 바뀌면서 모습이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해석에는 큰 차이가 없다.

審

금문

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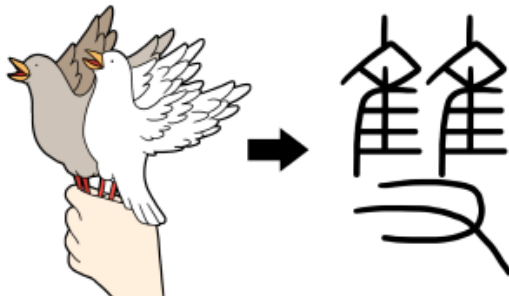
소전

審

해서

3(2)
-
266

회의문자①



雙

두/쌍 쌍

雙자는 '한 쌍'이나 '짝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雙자는 又(또 우)자와 隹(새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소전에 나온 雙자를 보면 새 두 마리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雙 그려져 있었다. 雙자는 이렇게 한 쌍의 새를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한 쌍'이라는 뜻을 표현했다. '한 쌍'은 짝을 이루고 있는 '둘'을 의미한다. 그래서 雙자는 '한 쌍'이라는 뜻 외에도 '둘'이나 '짝수'나 '짝이 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雙자는 획이 복잡하여 속자(俗子)로는 双(쌍 쌍)자가 쓰이기도 한다.

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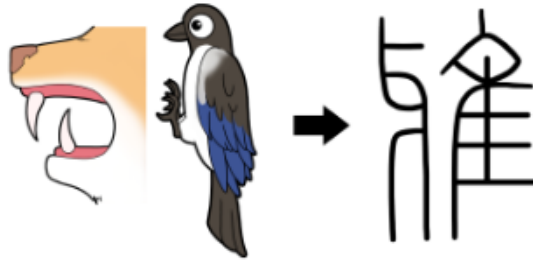
소전

雙

해서

3(2)
-
267

형성문자①



雅

맑을
아(·)

雅자는 '우아하다'나 '맑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雅자는 牙(어금니 아)자와 隹(새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牙자는 동물의 이빨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雅자는 본래 '메 까마귀'라 불리던 새를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후에 가차(假借)되어 '우아하다'나 '맑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메 까마귀가 울던 소리에서 뜻이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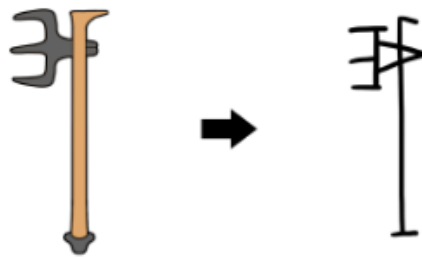
소전

雅

해서

3(2)
-
268

상형문자①



我

나 아:

我자는 '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我자는 톱니 모양의 날이 달린 창을 𠂔 그린 것이다. 이것은 서유기(西遊記)에서 저팔계가 가지고 다니던 삼지창과도 같다. 我자는 이렇게 삼지창을 그린 것이지만 일찍이 '나'를 뜻하는 1인칭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이 만들어졌던 은상(殷商) 시기에도 我자를 '나'라는 뜻으로 사용한 것을 보면 본래의 의미는 일찌감치 쓰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我자가 왜 '나'를 뜻하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은 없다. 다만 서로 같은 무기를 들고 싸웠다는 의미에서 '나'나 '우리'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 한자에는 余(나 여)나 吾(나 오), 朕(나 짐)자처럼 본래는 '나'와는 관계없던 글자들이 시기에 따라 자신을 뜻하는 글자로 쓰였었기 때문에 我자도 그러한 예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𠂔

갑골문

我

금문

我

소전

我

해서

3(2)
-
269

阿

언덕 아

형성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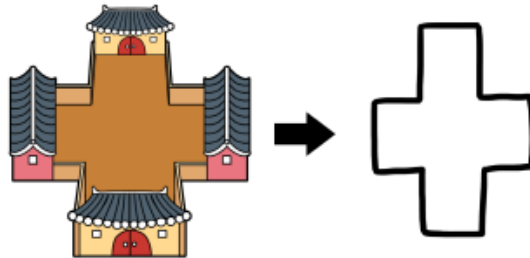
뜻을 나타내는 좌부번(阜 (=阜) ≡ 언덕)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휘어 구부러지
다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可(가→아)로 이루어짐. 山(산)의 굽은 곳 또는 언덕의 뜻을 나타
냄. 倚(의 ≡ 추종의 뜻)와 통하여 아부하다(阿附--.)의 뜻으로도 쓰임.

3(2)
-
270

亞

버금
아(:)

상형문자①



亞자는 '버금가다'나 '무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亞자는 고대의 주택 구조를 그린 것이다.
상주(商周)시기의 청동기 물건에도 亞자가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역사가 오래된 주택형식으로
보인다. 고대 중국의 주택 중 규모가 큰 집은 사면을 둘러싼 형식으로 지어졌었다. 이러한 저
택은 규모가 크기는 했지만, 궁궐에 비교할 바는 되지 못했다. 그래서 亞자는 가장 크다가 아
닌 '제2의'나 '다음가는'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